

##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결정 수혜자에 대한 선택책임감과 해석수준이 위험감수 정도에 미치는 영향

김 화 민<sup>†</su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루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결정들 중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결정도 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라도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의 수혜자가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결정자의 성향과 결정 시의 상황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정자의 성향 중 해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결정자가 처한 상황 중 결정자가 결정수혜자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선택책임감이 결정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하위해석자는 상위해석자에 비해 타인에 대해 선택책임감을 느끼는지 여부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해석자는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선택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에는 상위해석자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타인에 대해 선택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구매결정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타인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면 가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연구에서 책임감을 조작한 방식은 결정자가 결정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조작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게 책임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책임감이 결정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타인을 위한 결정, 선택책임감, 해석수준, 위험감수

<sup>†</sup> 교신저자 : 김화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ghkals07@knou.ac.kr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결정의 연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결정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것일 때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대신하여 수많은 결정을 내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결정의 수혜자가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을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보고 있는 몇몇 연구들은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와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자에게 작용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결정자의 성향과 결정자가 결정의 수혜자에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가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먼저, 보다 일반적으로 결정의 수혜자가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

Kray(2000)는 자기를 위해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하지만,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차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Laran(2010)의 연구에서는 결정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 또는 친구를 위해

여러 가지 식품들 사이에서 4개의 식품을 연속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에는 건강에 좋은 식품과 맛있는 식품을 적절하게 섞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는 맛있는 식품 위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위한 조건에서 균형을 추구하지만,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에서는 쾌락을 추구함을 보여주었다(Laran, 2010).

####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의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각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여겨져 왔다(Eysenck & Eysenck, 1977; Hanoch, Johnson, & Wilke, 2006; Zuckerman & Kuhlman, 2000). 그러나 위험감수를 다룬 후속 연구들은 조절 변수들을 추가하여 이 변수들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루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자의 위험감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olman(2012)의 연구에서는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자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에서 뒷면이 나오면 돈을 잃고 앞면이 나오면 돈을 얻도록 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게임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위험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결정의 수혜자가 자신이 아닌 타일일 때 게임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isswang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상대방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와 같은 선택을 하는데 있어 결정의 수혜자가

자신인지 아닌지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해주는 조건에 참여자들은 위험을 감수했을 경우 돌아올 혜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하는 조건에서는 위험 추구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쉽게 무시하지만,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은 결정의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일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Atanasov(2010)의 연구에서는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위험 회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정자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나 결정을 대신해준 타인과 관계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될 때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보다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선택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의 타인을 위한 결정**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는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보다 결정의 결과에 대해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인 선택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 et al., (2006). Tetlock(1992)은 그 이유가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에는 결정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결정의 수혜자에게 돌리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Choi 등(2006)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선택책임감 유무가 다양성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책임감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결정을 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추구하지 않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수용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는 미래의 식상함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실제보다 미래에 더 많이 식상함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타인을 위해 9개의 서로 다른 스낵 중 5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이때 5개 제품을 모두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복해서 고를 수도 있고 5개를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에서는 참여자에게 자신이 5가지 스낵의 조합을 결정한 이유를 결정의 수혜자가 읽어보도록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에서 더 다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Polman(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는 적은 수의 대안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는 많은 수의 대안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선택책임감의 정도가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학기에 수강할 강의를 결정할 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16개의 강의 가운데 결정하는 것과 60개의 강의 가운데 결정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결정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하는 조건의 참여자들 중 절반에게는 책임감을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읽는다고 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참여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 참여자들은 더 적은 수의 옵션 가운데 결정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 중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에서는 더 많은 수의 옵션 가운데 결정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다. 반면, 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에서는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수의 옵션에서 결정할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olman, 2012).

#### 해석수준

Trope과 Liberman(2003)에 의해 제안된 해석수준이론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먼 것은 추상적이고 상위 수준으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은 구체적이고 하위 수준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확률적 거리로 구분할 수 있다(Trope & Liberman, 2003).

이와 같은 해석 수준 이론의 핵심은 상위 해석은 포괄적 목표에, 하위 해석은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을 단순히 심리적 거리로만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과는 또 다른 해석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해석 수준은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닌 개인들에 따라서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Freitas, Salovey, & Liberman, 2001; Vallacher & Wegner, 1989),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는 해석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의 행동정체성 척도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였다.

####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결정과 해석수준

Danzige, Montal 및 Barkan(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실용적인 특성을 갖는 Ben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상적인 특성을 갖는 Adam 중에서 과제를 함께할 파트너를 결정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이상적인 대안의 지각된 중요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추천하는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용적인 대안의 중요성은 자신을 위한 결정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을 조작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해석수준을 조작한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 추천해주는 조건에 있는 참여자들 중 하위 해석수준으로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이 비점화 조건 또는 상위 해석수준으로 점화된 참여자들과 비교해서 이상적인 대안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더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zige et al, 2012). 이 연구 결과는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의 차이점을 해석정도가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해석수준과 위험감수

Lerm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상황적으로도 점화한 후에 위험감수 행동과 해석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상적으로 점화된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점화된 참여자들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위해석자보다 하위해석자가 스스로를 위협한 상황에 들어가게 하려는 경향이 더 적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Polman(2012)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행동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을 7가지 다른 측면에서 더 향상시키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기회가 있다고 상상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두 가지 기회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하위해석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 위험 회피가 더 높게 나타나고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는 위험 회피 정도가 감소하였다. 반면, 상위해석자는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에도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처럼 위험 회피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Polman, 2012).

한편 시간적 거리와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Chandran과 Menon(2004)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를 하루 또는 일년으로 구분한 뒤 스마트폰의 전자파 예방 행동의 난이도를 조작하였다. 난이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핸드프리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벨트에 스마트폰을 꽂아두고 다니지 않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 폰을 사용하지 않기, 대화를 가능한 짧게 하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 년 틀에서는 예방 행동의 난이

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예방 행동 수행 의도가 높은 반면, 하루 틀에서는 예방 행동 난이도에 따른 차이 없이 예방 수행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건강과 관련된 위험이 심각한 위협으로 지각되어 사람들이 명시된 예방 행동의 어려운 정도에 관계없이 예방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지만, 시간적 거리가 멀게 제시되면 예방 행동의 난이도가 낮을 때에만 예방 행동 수행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경욱(2010)은 흥미로운 수업이지만 성적 평가가 까다로운 수업을 결정하는 것은 낮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라고 보고 시간적 거리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경우보다 먼 미래로 지각할 경우에 위험 감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현숙과 주소현(2014)의 연구에서는 은퇴를 먼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의 은퇴준비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2014)의 연구에서도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을 먼 시간적 거리로 제시할 때보다 가까운 시간적 거리로 제시할 때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하위수준 해석이 이루어지고 심리적 거리가 멀 때에는 상위수준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점(Trope & Liberman, 2003)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 거리 중 하나인 시간적 거리와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의 관련성을 살펴본 Chandran과 Menon(2004) 그리고 김경욱(2010) 등의 연구 결과도 상위수준에서 위험 회피가 더 낮게 나타나고 하위수준에서 위험 회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앞의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행동정체성 척도

해석수준은 상황적으로 점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정체성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해석을 한다고 보고 있다. (Kim & John, 2008).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 정체성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구체화하는 하위 정체성에서부터, 개인이 “왜” 행동을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상위 정체성에 이르는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Vallacher & Wegner, 1989). 상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보다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왜”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하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동일한 사건 또는 대상이라도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에 따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척도화 시키기 위해 Vallacher와 Wegner(1989)는 행동 정체성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2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각각의 문항마다 두 가지의 보기 문항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특정 행동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특정 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 가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위 수준 해석자가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선택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위험 추구 정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상위 수준 해석자가 선택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에서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위험 추구 정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일관되게 위험 추구 정도가 높게 나타난 상위 해석자와 달리, 하위 수준 해석자는 자기를 위한 결정인지 타인을 위한 결정인지에 따라 위험 추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상위수준 해석자는 선택책임감 유무가 위험감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 1-2.** 하위수준 해석자는 선택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자신을 위한 결정, 타인에게 선택책임감 유)에서는 위험감수 수준이 낮은 대안을 더 선호하는 반면, 선택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타인에게 선택책임감 무)에서는 위험감수 수준이 높은 대안을 더 선호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실험 설계

3(대상책임: 자신/타인-선택책임감 유/타인-선택책임감 무) X 2(해석수준: 상위/하위)의 이원 완전무선 요인설계로 연구 참여자들은 위의 6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 독립변수

### 결정수혜자에 대한 선택책임감 유무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하는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반에게는 선택책임감을 느끼도록 조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한 후, 그것을 상대방이 읽는다고 하였다.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하는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 중 나머지 반에게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Polman, 2012). 즉, 결정자가 결정수혜자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선택책임감이 결정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후 참여자를 자기를 위한 결정 조건과 타인을 위한 결정 중 책임감을 느끼도록 조작한 조건 그리고 타인을 위한 결정 중 책임감을 느끼도록 조작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성된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 해석수준

Vallacher와 Wegner(1989)가 개발한 행동정체성 척도로 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측정하였다.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참

여자에게 두 가지 보기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라는 특정 행동에 대해 하나의 보기는 ‘안녕이라고 말하기’라고 제시한 반면, 다른 하나의 보기에서는 ‘친밀함을 표현하기’라고 제시하고 있다면 이 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으로서 해석수준이 작용할 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 정체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한 보기를 결정한 경우에만 1점을 추가하여 중앙값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상위해석자와 하위해석자로 구분하였다.

## 종속변수

### 위험감수 수준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위험감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수준이 높은 대안과 낮은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결정하게 하였다.

### 실험재료

몇 차례의 사전 조사를 통해 실험에 적절한 대상물과 그 대상물의 위험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가격, 할인율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나리오에 적합한 실험재료로 공기청정기, 노트북 등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소비자광고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의 토의를 실험재료로 유행하는 브랜드의 가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에 적절한 가격과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가격대와 할인율의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한 후 2차적으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험에서 사용할 시나리오에 가격과 할인을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하여 어떤 가격대와 할인율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수치에 대해 응답을 받아 평균값을 중심으로 책정되었다.

시나리오는 중고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상황으로 작성하였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중고거래사이트 판매자 A는 위험감수 정도가 낮은 대안을 제시하고 판매자 B는 위험감수 정도가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판매자 A에게 중고 가방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판매자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판매자 B에게 중고 가방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가방을 구매할 수 있지만, 선 입금 후 제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판매자 A와 B가 판매하는 중고가방의 사용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의 가방인 OO가방을 사고 싶었지만 35만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두 명의 판매자가 그 가방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린 판매자 A는 그 가방의 원래 가격보다 5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구매자와 시간 약속을 해서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린 또 다른 판매자 B는 A가 올린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인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자신이 회사원이라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계좌에 입

금을 해주면 다음날 그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에게 구매하면 제품을 직접 보고 가지고 오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격이 더 비싸고 B에게 구매하면 직접 제품을 보고 가지고 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판매자 모두 올린 사진에 보이는 가방 상태가 비슷하게 양호하고 정품임을 인증하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어떤 판매자에게 가방을 구입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시나리오는 자기를 위한 결정 조건과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 실험 절차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읽어보게 한 다음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책임감 수준을 조작하고 이에 대한 조작 점검을 실시한 후, 두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결정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25문항으로 구성된 해석수준 척도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해석수준 척도에 응답 전에 이전의 응답 내용이 해석수준 측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본 실험과는 무관한 미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 결 과

#### 조작점검

본 분석에 앞서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의 설문에 응답한 164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책임감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각된 책임감을 측정하였다.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 중 책임감을 느끼는 조건(n=85)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n=79)에 평균은 각각 M=4.56(SD=.59)과 M=2.66(SD=.91)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각각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조작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타인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의 참여자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자신의 결정을 결정의 수혜자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64)=-3.67, p<.01).

연구 결과

실험에 참여한 234명 가운데 참여자 개인의 해석수준을 측정한 값이 중위수(11점)에 해당하는 17명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중고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3명을 제외한 총 214명의 참여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책임과 해석수준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매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Hosmer와 Lemeshow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p>.05)

이에 따라 위 변수들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대상책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WALD(1)= 5.383, p<.05).

대상책임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1)= 4.170, p<.05).

또한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의 예측력은 75.2%로 나타났다.

표 1.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2.142	4	.710

표 2. 대상책임, 해석수준과 위험감수 수준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계수(B)	표준오차 (SE)	WALD 통계량
대상책임(A)	-.665	.286	5.383*
해석수준(B)	-1.707	.917	3.467
A x B	.830	.406	4.170*

\*p<.05

표 3. 대상책임, 해석수준과 위험감수 수준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예측력

		예측		
		위험감수 수준		분류정확%
		위험감수	위험회피	
위험감수정도	위험감수	0	53	.0
	위험회피	0	161	100.0
전체퍼센트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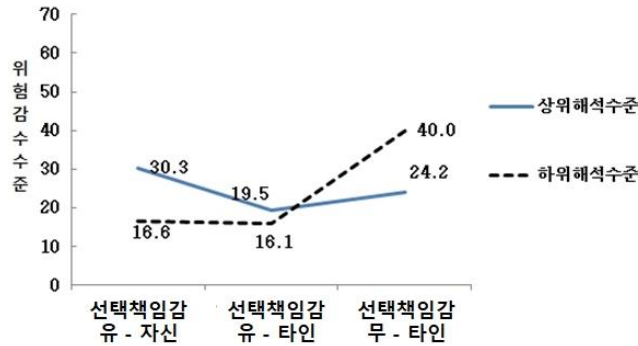


그림 1. 선택책임감과 해석수준의 이원상호작용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그림 1을 통해 살펴보았다. 하위 해석자의 경우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책임감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위한 결정조건과 타인을 위한 결정 중 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타인을 위한 결정 중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조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증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상위 해석자의 경우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책임감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도에 영향을 덜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상에 따른 위험 감수 구매 수준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를 위한 결정 또는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 결정의 수혜자에 대해 느끼는 선택책임감과 결정자의 해석수준이 결정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 1에서는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선택책임감을 느끼는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 해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상위해석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 수준이 높은 대안을 선호하는 반면, 하위해석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 수준이 낮은 대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를 위한 결정 조건에서 해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예상대로, 상위 해석자는 하위 해석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감수 수준이 높은 대안을 더 선호하였다. 한편 타인에게 선택책임감을 느끼는 조건에서는 해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해석자와 하위 해석자 모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타인에게 선택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결정을 할 때 해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때에는 개인이 어떠한 해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위험감수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위 해석자의 경우 자신을 위한 결정과 책임감을 느끼는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과 비교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에서 위험감수 경향이 뚜렷이 증가

하였다. 상위 해석자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책임감을 느낄 때와 비교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지만, 하위 해석자와 비교해서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책임감을 느끼는 타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논의하면,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위해석자는 결정의 수혜자가 자기 자신인지, 타인인지와 무관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하위해석자는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해석자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타인을 위한 결정 상황에서는 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타인에 대해 선택책임감이 느껴지면 해석수준과 무관하게 안전을 지향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상위 해석자들의 타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때 더욱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보다 책임감을 느끼는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보다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보다 더 강력한 위험회피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매결정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타인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면 가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책임감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선택책임감이 결

정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욱 (2010).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이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해석정도가론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659-678.
- 박현정 (2014). 질병 예방 행동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 연구: 자궁경부암에서 심리적 거리, 해석수준, 이득-손실 프레임 중심. *한국언론학보*, 58(3), 344-377.
- Atanasov, P. D. (2010). Double Risk Aversion. <<http://ssm.com/abstract>>
- Beisswanger, A. H., Stone, E. R., Hupp, J. M., & Allgaier, L. (2003). Risk taking in relationships: Differences in deciding for oneself versus for a frien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2), 121-135.
- Botti, S., Orfali, K., & Iyengar, S. (2009). Tragic choices: Autonomy and emotional responses to medical deci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 337-352.
- Danziger, S., & Montal, R., & Barkan, R. (2012). Idealistic advice and pragmatic choice: A psychological distance accou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105-1117.
- Fischhoff, B. (1992). Giving advice: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sexual assault. *American Psychologist*, 47, 577-88.
- Hamilton, R. W., & Biehal, G. (2005). Achieving

- Your Goals or Protecting Their future? The Effects of Self- View on Goals and Cho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277-283.
- Kray, L. (2000). Contingent weighting in self-other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3(1), 82-106.
- Kray, L., & Gonzalez, R. (1999). Differential weighting in choice versus advice: I'll do this, you do that.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 207-217.
- Laran, J. (2010). Goal management in sequential choices: Consumer choices for others are more indulgent than personal cho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304-314.
- Lerner, E., Streicher, B., Sachs, R., Raue, M., & Frey, D. (2014).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risk-ta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Eur. J. Soc. Psychol.
- Lerner, J., & Tetlock, P. (1999).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255-275.
- Loewenstein, G., E. U. Weber, C. K. Hsee, E. S. Welch. 2001. Risk as feelings. *Psych. Bull*, 127, 267-286.
- Mandel, N. (2003). Shifting selves and decision making: The effects of self-construal priming on consumer risk-t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0(1), 30-40.
- Pollmann, M. H., Potters, J., & Trautmannb, S. T. (2014). Risk taking by agents: The role of ex-ante and ex-post accountability. *Economics Letters*, 123, 387-390.
- Polman, E. (2010). Information distortion in self-oth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432-435.
- Polman, E. (2012). Self-other decision making and loss aver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9, 141-150.
- Polman, E. (2012). Effects of self-ther decision making on regulatory focus and choice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980-993.
- Polman, E., & Emich, K. J. (2011). Decisions for others are more creative than decisions for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492-501.
-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9).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i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60-671.
- Van Boven, L., & G. Loewenstein, G. (2003). Social projection of transient drive states. *Psych. Bull*, 29(9), 1159-1168.
- Van Boven, L., & Loewenstein, G. (2005). Cross-situational projection. *The Self in Social Judgment*, Psychology Press, 43-64.
- Van Boven, L., Loewenstein, G., & Dunning, D. (2003), Mispredicting the endowment effect: Underestimation of owners' selling prices by buyer's agen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1(3), 351-65.

원 고 접 수 일 : 2019. 01. 16.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5. 23.  
게 제 결 정 일 : 2019. 07. 12.

## **Accountability of Choice and Construal Level on Risk-Taking Decision-Making Made for Oneself or for Others**

**Kim Hwa Mi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mong the many decisions made throughout the day is not only for myself, but also for others. In the same situation, however, who is the beneficiary of the decision may affect the outcome of the decision.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decision beneficiary affect the decis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decision object and construal levels on risk-taking.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oice accountability on the decision maker by comparing it with the decision maker's accountability to explain its decision to the beneficiary of the decis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ecision object and construal levels on risk-taking levels has been examined. Each participant wa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conditions in the experimental of 3(decision object: self/other with accountability/ without accountability) X 2(construal level: high/low) 2-way 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 The result shows an effect of correlation between decision object and construal level, and represents that participants who have low-construal prefer to select low risk-taking choices when the decisions are made for self and for other with responsibility, whereas participants who have high-construal reveal not much difference. Although it is very common to decide whether to take or avoid risks in various circumstances, this study focuses on consumers' decision making upon purchase. Especially, a decision making procedure upon purchasing items for oneself or for others has been investig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others classified by detailed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e that people have a tendency to take higher risks for the choices for others than for themselves but the tendency diminishes when they feel accountabilities. Through the measurement of construal level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individuals' variable also has an influence on the results.

*Key words* : self-other decision-making, accountability of choice, construal level, risk-taking